

'검약재' 이재명, 인적쇄신 카드로 위기 돌파 모색

체포안 이탈 후폭풍에 측근 사망 당직 인선·공천 TF 비명계 발탁 기득권 최소화 공천 혁신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무더기 이탈 표 사태에 따른 당의 내홍에 이어 경기지사 시절 측근 사망이라는 '검약재'에 직면했다. 당내 소통을 늘려가는 등 내홍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자신이 얻은 힘의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최측근이 사망함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형국이다.

이 대표 진영에서는 '통합과 혁신'을 고리로 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직 인선에서 비명(비이재명) 발탁 등을 통한 당내 통합을 꾀하고 공천 혁신 카드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 것이다. 하지만, 통합과 혁신이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어 과연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가 미지수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때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씨가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주당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일단 당내에서는 민심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씨의 사망이)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저 때문이냐"라고 항변했지만 비명계의 시선은 더욱 냉랭해지는 흐름이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다. 또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주 예정된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길' 토론회나, 당내 의원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의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까지 거취를 고민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어떻게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규탄 장외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강력 비판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표직 사퇴 없이 이 대표가 위기를 돌파할 방안으로 인적 쇄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 취임 6개월이 지난 데다 당내 통합을 위해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달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원내대표 경선 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일단 약재로 시집이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온건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 사퇴 이후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 카드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인적 쇄신의 규모와 자리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친명계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등에 비명계 인사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내대표에 친명 주자가 나선다면 사무총장은 비명계가 맡아야 한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그동안 주요 당직에서 제외된 호남 국회의원들의 중용 여부도 주목된다. 전남의 이개호 의원이 최근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 포스(TF)" 단장에 임명된 것은 당내 통합을 위한 인적 쇄신의 첫 걸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서는 사무총장직을 비명계에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 그리 편지 않은 분위기다. '내홍 수습용', '위기 탈출용' 인적 개편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분열은 내년 총선 필패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내부 통합을 위한 인적 쇄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년 공천 혁신 작업도 본격화 한다. 일반적으로 혁신을 밀어붙이기보다 시스템 공천을 바탕으로 친명계와 비명계가 함께 혁신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정치 신인과 청년 가산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천 물은 폭발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특히, 당내 분위기가 통합에 방점이 찍히면서 호남 민심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공천 혁신안 마련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며 "통합과 혁신의 총물 지점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공천 안 마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 아당탄압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 강제동원 해법 철회·김건희 특검 수용 서명운동

검사독재 친일본색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2일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과 강제징용 정부해법 철회, 김건희 주가조작과 50억 클럽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서명을 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시당은 앞서 지난 11일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정권 아당탄압 검사독재 친일본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훈(광주 동남읍) 광주시당

위원장과 신정훈(나주·화순)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 정정래·박찬대·임선숙 최고위원,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핵심당원 등 약 15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당 당원 일동은 이날 규탄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나라와 국민의 신음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치솟은 물가는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검찰의 권한을 사적 권력으로 남용

해 독재정권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적제거와 아당탄압 입삼는 수사는 명백한 검찰공화국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제104주년 3·1절 경축사를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의 명예를 훼손하며,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국민은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 대통령 "강제동원 해법은 공약 실천...미래 위한 결단"

대통령실 "후속 조치 이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을 두고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12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공약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

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10곳에 달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

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중 한 세션을 주재해달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아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오는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 회의는 미국 주도로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p 하락 34%

갤럽 조사...국힘 38%·민주 3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떨어져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8%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28일~3월 2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3%p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p 상승해 32%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8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진 29%였지만, 일주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무당층은 25%, 정의당은 4%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배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배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